

지역기후변화 정책 공유 및 기상기후서비스 발굴을 위한
충북지역 기상기후서비스 발전 간담회 개최 결과

【 2015. 8. 5(수) / 청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】

□ **추진 목적**

- 충북 지자체 기후변화 관련 정책 공유 및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 확산·홍보
- 유관기관 간 기후변화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업무 추진 및 기상기후서비스 발전 방안 모색

□ **회의 개요**

- 일시: 2015. 7. 23.(목) 15:30~18:00
- 장소: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2교육장
- 참석자: 총 34명
 - 외부(9명): 충북대 반영운 교수, 충북농업기술원 장후봉, 김선국, 충북도청 박재신, 정철기, 청주시 박종진, 증평군 황영미,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박지형,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허창원 등
 - 내부(25명): 청주기상지청장, 관측예보과장, 기후서비스과장, 직원 등
- 주요 내용
 - 안건: 지역기후변화 정책 공유 및 기상기후서비스 발굴
 - 주제발표: 4과제
 - 충청북도 기후변화적응 정책 방안 /충북대 반영운 교수
 -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 현황 및 활용 /청주(지청) 운영문 주무관
 - 충북지역 최근의 기상과 병해충 발생 /충북농업기술원 김선국 박사
 -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 사업 소개 /청주(지청) 이은영 주무관

□ **주요 토의 사항**

- (반영운 교수) 충북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 '생태계 부문' 주요과제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·복원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다양한 생물종과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
 - ☞ (박재신 팀장) 충북도에서는 '생물다양성 조사 용역'을 통해 충북 전역 생물 분포도 조사를 수행 중임. 충북도는 기후변화 적응 부분에서 모든 시군에서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연말에 평가도 시행함.
- (반영운 교수) 충북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면서 기상측정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음. 정밀하고 효과적인 적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 측정망 세밀화가 필요하며 현 측정망의 대안 계획이 필요함.
 - ☞ (하창환 지청장) 기상측정망 세밀화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지자체 측정망 공동 활용이 필요함. 기상청에서는 지자체 측정망을 종합 표출하는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했으나, 기관별 설치 목적이 다르고 자료 종류·형식, 표출 간격 등이 달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.
- (하창환 지청장)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관리 전략으로 기상기후를 활용한 병해충 예찰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상기후와 병해충 등 각 전문분야를 접목하는 부분이 중요함.
 - ☞ (김선국 박사) 서로의 서비스를 융합하는 것이 필요함.
- (이은영 주무관) 기상청 사업은 보통 1년 사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, 농가 시설물에 대한 관측자료 수집기간이 짧아 정확한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데, 농업기술원은 어떤가?
 - ☞ (김선국 박사) 농업기술원에서는 보통 3년 연구 사업을 하며, 장비를 미리 설치하여 이용함.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미세 기상이 필요하며, 사업의 기본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상정보를 기상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.
 - ☞ (하창환 지청장) 관측자료가 없으면 재분석 자료 활용 가능.

□ 관련 사진



□ 언론 보도

순번	언론사	보도일시	보도 타이틀
1	충북뉴스	7.23	충북 기상기후서비스 발전 간담회 열려 -청주기상지청 산학연관 협력...기후변화 대응-



[충북뉴스 소진섭 기자] 청주기상지청(지청장 허항환)은 23일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'충북지역 기상기후서비스 발전 간담회'를 가졌다.

충북의 '지역기후변화 정책 공유와 지역 발전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발굴'이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는 기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산학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.

충북대학교 반영준 교수의 '충북도 기후변화적응 정책 방안'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충북농업기술원 김선국 박사의 '충북지역 최근의 기상과 병충해' 등 4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.

허항환 지청장은 "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"며 "앞으로 청주기상지청은 지역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, 충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상기후정보를 발굴해 나가겠다"고 말했다.

114@cbnews.kr

